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70 YEARS 1953-2023 |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장흥 빛의숲교회 조감도

장흥 빛의숲교회 건축을 위한 여선교회 추계 바자회

10월 24일(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밀레니엄광장에서 열려

여선교회총연합회(회장 이화열 권사)에서 주최하는 추계 선교 바자회가 10월 24일(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림교회 밀레니엄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추계 바자회의 수익금은 장흥 빛의숲교회 건축 후원금으로 봉헌할 예정이며, 지난 춘계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은 튀르키예 난민과 안디옥 성도를 위해 쓰여졌다.

광림교회는 전국 군(郡) 단위 도시 중 유일하게 감리교회가 없었던 전라남도 장흥군에 '장흥 빛의숲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내년 초 완공될 빛의숲교회는 호남특별연회에서 교회 부지를 제공했고 광림교회가 건축을 맡기로 했으며, 건축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여선교회에서 봉헌할 예정이다.

오직 선교의 비전으로

광림교회 여선교회는 '멈출 수 없는 오직 선교'라는 비전을 품고 해마다 선교 바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1987년 전남 해남군 새롬교회 봉헌을 시작으로 해마다 김포, 거제, 목포, 신안, 무안, 충주 등 국내 교회 건축 및 봉헌, 1992년 특전 교육단 교회 봉헌 후원 이후 백마대교회, 횃불교회, 연평교회 등 군 교회 봉헌 및 후원, 러시아, 몽골, 파키스탄, 중국 등 해외 교회 및 미션 센터 봉헌에 앞장서 왔다.

또한 1998년 광림 역사관 건립 봉헌, 1999년 서울대학교병원 교회 봉헌, 2009년 광림동 교회 봉헌, 2022년 동탄 광림교회 건축 후원 등 꾸준히 선교회 회원들의 헌금과 헌신을 담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섬김을 이어가고 있다.

여선교회 바자회는 매년 봄과 가을, 총력 전도의 달 마지막 주에 열린다. 팬데믹 기간에는 온라인 바자, 브로서 바자 등 미니 마켓 형식의 바자회로 전환을 시도하였고, 3년 만에 열린 작년 춘계 바자회를 기점으로 기존의 현장 바자회로 온전히 회복하였다.

이번 추계 바자회에서도 홍보를 통해 주변 이웃 전도에 힘쓸 예정이며, 전도 대상자와 새신자를 위한 특별 환영 부스를 준비하고 선물도 마련하였다. 바자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풍성한 경품 추첨 및 기념 사진 촬영 장소도 제공될 예정이다. 다른 때보다 개체선교회의 아나바다 코너를 강화하였고, 개체연합회별 애장품 판매, 외부 업체 초청 물건 판매, 애찬관에서 잔치국수와 비빔밥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호남특별연회 여선교회 특산물 판매

추계 바자회에서는 특별히 장흥 빛의숲교회 내부 제단과 성물을 봉헌하기로 한 호남특별연회 여선교회를 초청하여 지방 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화열 권사는 "1983년부터 시작된 40년 전통의 여선교회 바자회는 선교와 전도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립니다. 매번 그 시대의 선교 비전을 목표로 세워두고 바자회가 열렸으며,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센터를 단독 봉헌하거나 봉헌 후원했습니다.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귀한 마음과 물질로 섬기는 여선교회의 전통이 앞으로도 중단없이 계속 이어 나가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교회의 총력전도 주간에 열리는 여선교회 바자회가 전교인 전도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 받는 생명의 축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박희윤 기자

2 광림의 강단 진실된 섬김의 삶
3 광림 스토리 광림세미나하우스 리모델링
4 하나님을 만나다 외국인제자센터 한가위 잔치
5 다음세대 청장년부
6 목회현장 동탄광림교회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진실된 섬김의 삶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창 24:18)

본문에는 섬김의 본을 보인 리브가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세월이 지날수록 아들 이삭의 결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불러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오기를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낙타 열 마리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짐승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섬기는 여인이 있다면 이삭의 아내로 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홀 성에 이르렀을 때 저녁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뜨거운 태양이 저무는 저녁때가 되면 물을 길어 나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긷는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브가는 급히 물동이를 내려 처음 본 아브람의 종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귀들에게까지도 물을 먹였습니다. 또한 쉴 곳을 찾는 종에게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선뜻 물을 주는 수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나귀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리브가의 섬김이 아브라함의 종을 감동시켰고, 이로 인해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섬김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으로 기억되게 합니다. 섬김은 내가 대접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섬김은 우리 눈에 유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을 알고도 섬기는 믿음 안에는 삶을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존중과 높임으로서의 섬김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 24:10~25

10.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때였더라 12.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5.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16.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땁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17.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긷는지라 21.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 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23.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25.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짚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첫째, 섬김은 인격적 존중과 높임입니다

리브가에게 볼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은 섬김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높임의 자세입니다.

리브가는 물을 요청하는 낯선 남자에게 "내주여 마시소서"(창 24:18)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기력이 약한 아브라함의 종에게 극진한 높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주'라는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인정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혹시 상할 수 있는 자존심을 보호하며, 진정으로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필요한 좋은 일을 해주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와 말투를 보이는 것은 상대방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입니다. 섬김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리브가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행동이 바로 진정한 섬김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리브가와 같은 말과 태도로 인격적 존중과 높임을 훈련해야 합니다. 섬김의 자세가 준비된 곳에 복된 주님의 사역이 일어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둘째, 섬김은 자신의 일을 멈출 때 가능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요청에 자신의 일을 멈추고 섬겼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기 전 바쁘게 물을 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자신의 일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창 24:18) 진정한 섬김의 조건은 자신의 일을 멈추는 것에 있습니다. 한가할 때 섬긴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섬김을 보여준 선한 사마리아인을 살펴봅시다. 누가 강도 당한 사람을 섬겼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이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자를 섬겼습니다. 자신의 일을 멈추었던 사마리아인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연히 한가한 시간이 생기기를 바라기보다는 삶에 섬김과 봉사가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섬김의 손을 내밀기 위해 자신의 일을 멈추고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뤄진 사랑의 수고가 병들어 있는 이 사회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메말라가는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잠시 멈춰놓고 리브가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를 섬기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섬김은 넘치도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넘치도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잠시 멈추어 물을 한 그릇 주고, 성급히 자신이 하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물을 마시는 동안 더 섬길 일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낙타 열 마리를 위해서도 기꺼이 물을 내주었습니다. 우물은 깊었고,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일은 여성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목이 마른 낙타는 한 마리당 보통 7리터, 많게는 10리터 이상의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리브가는 바로 이러한 낙타 열 마리를 위해 깊은 우물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퍼올리는 수고를 했습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청하는 것만 딱 해준다면 그것은 마지못해 하는 수고일 것입니다. 넘치도록 수고하며,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섬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길 때 충분한 수고로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섬김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필요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넘치도록 수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섬김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리브가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계보를 잇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 야곱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간 리브가처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인간을 죽기까지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을 훈련하여 세상을 치유하는데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림세미나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말씀 연구와 신앙 훈련의 장, 10월 말 완공 예정

은혜로운 영성 훈련의 장으로 사명을 감당해 온 광림세미나하우스(위원장 양원식 권사)가 새로워진다. 1995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세워진 세미나하우스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들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여 요즈음 트렌드에 맞는 학술세미나를 위한 공간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에 시작된 공사는 현재 70% 정도 완성되었고 오는 10월 말 완공 예정이다.

공사 중인 세미나하우스 본관은 기존 500명 규모의 수용인원을 250명~300명으로 축소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세미나실과 숙소로 리모델링 하고 있다. 설립 당시 106개였던 객실 수를 71개로 조정하여 수를 줄이고, 대신 객실을 쾌적하게 넓히며 크기도 대(4~5인실), 중(2~3인실), 소(1인실)로 다양화했다. 이외에도 옥상의 방수 시설과 냉온수 배관, 실내 인테리어, 냉난방 시스템, 외벽 도장 공사 등도 안전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

각 층의 세미나실, 집회실, 휴게실이 새로워지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도 마련했다.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맘껏 즐길 수 있는 워터 풀장도 신설할 예정이다.

세미나하우스는 오랜 세월 세계 각국에서 모인 목회자들과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기도회와 수련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말씀 연구와 신앙 훈련의 장으로 쓰임 받아왔다. 웨슬리 목회 컨퍼런스, 세계감리교전도위원회 등 굵직한 학술포럼과 세미나가 열렸고, 광림교회의 실천목회를 배우러오는 미국 애즈베리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비슨트립의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광림교회 교역자들의 목회세미나와 평신도를 위한 익투스 영성 수련회, 청장년부 행사, 선교구 기도회, 청소년 수련회 등 은혜로운 영성 훈련의 장으로 사명도 감당해왔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세미나하우스 대예배실을 리모델링 하여 쾌적하고 거룩한 공간으로 단장했다. 또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40분 정도로 근접성이 좋을 뿐 아니라 인근에 광릉수목원이 있어 아름다운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 적합하다.

양원식 권사는 "세미나하우스가 리모델링 공사를 안전하게 잘 마치고 품격과 격식이 있는 세미나를 위한 영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관재 담당 이안수 장로는 "새로워지는 세미나하우스가 성도들의 소그룹 예배처소와 전문적인 세미나 공간으로 광림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영성이 회복되는 기도의 처소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했다.

코로나 이후 현재 광림수도원과 국제광림비전랜드는 비수기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 신앙의 옛 추억을 되새기며 한국교회 평신도와 목회자, 신학교 기관,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방문해 목회와 행사의 장소로 쓰임 받고 있다. 얼마 전 홍콩 구룡감리교회도 방문 후 재방문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하며 자연 속 광림의 영적 공간들이 한국교회 신앙의 명소로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현수 기자

인도차이나반도 감리교회 선교사대회

10월 10일~12일, 베트남 푸꾸옥에서 선교사 가정 초청

광림교회는 매년 세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사 가정을 초청해 위로하고 새로운 비전을 찾는 선교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남부 아프리카, 몽골, 캄보디아 등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 가정을 섬겼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선교사대회가 중단되었지만, 10월 10일~12일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 선교사 가정을 베트남 푸꾸옥으로 초청해 선교사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는 아시아의 남동쪽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반도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인도의 동쪽, 중국 대륙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이 있습니다. 태국을 제외한 인도차이나반도 지역 대부분의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등의 식민지였다가 1948년에서 1954년 사이에 독립했습니다. 인도차이나반도에는 약 200여 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갔음에도 인접국가인 중국의 공산체제 영향과 불교와 힌두교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 복음화가 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방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젊은 세대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약 140여 선교사 가정이 있으며 곳곳에서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교류하기 힘들었던 60여 가정(170여 명)을 푸꾸옥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정석 담임목사의 특강과 집회, 각 나라별 선교 전략 세미나, 송정미 교수의 찬양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광림의료선교위원회 20여 명의 의료진과 봉사자가 동행하여 건강 진료와 선교지에서 필요한 응급 및 기초의료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성경 캠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림교회 본당과 베트남 광림교회에서 목회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차이나반도 감리교 선교사대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포토 뉴스

통일성취기도회
10월 19일(목) 전후방 군부대에서 통일성취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다.

2023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가을 학기 '잠언'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다.

2023 하반기 성경필사 배포
손으로 쓴 성경 필사본을 목회선교지원실에서 배포하고 있다.

담임목사 동정

10/1	여선교회 월례회
	장로회 월례회
10/4	수요치유의신학
10/6	5군단 방문
10/7	추계산상기도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사회사업위원회

추석, 사랑의 돌봄 행사를 갖다

9월 27일 오전 5시 30분부터 장천홀 입구에서 어르신들 후원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최제환 장로)는 9월 27일 오전 5시 30분부터 추석을 앞두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돌봄 행사를 가졌다.

비가 계속 내리는 탓에 장소를 장천홀 입구에서 진행했는데, 행사 일정이 첫째 주 수요일에서 이날은 추석을 앞둔 시점으로 변경하고, 또 날씨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 전인 골목길에는 우산을 든 어르신들이 밀려들어 길게 줄을 섰다. 행사 시간 1시간 30분 동안 총 230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에게는 사탕, 두유, 가래떡과 파스, 현금을 지급했다.

선물 중에 두유와 성경 구절로 포장된 사탕은 김명진 권사가 후원하고 있으며, 추석을 맞이하여 이날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안병철 권사(18교구)가 본사 직원과 함께 봉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후원하였다.

안 권사는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분이 좋다. 기드온에서 차량 봉사도 하고 있는데 봉사를 하면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은혜를 많이 받고 기쁨이 넘칠 때가 많다. 기업을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길음동에서 첫 지하철을 타고 왔다는 이정옥(80세) 할머니는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두 발을 다쳤는데 큰 후유증 없이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한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필 교회 앞에서 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었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같은 행사 때마다 광림교회를 찾아오는데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최제환 장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 나눔 행사를 중단한 곳도 많지만 광림교회는 계속해서 이를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한때는 매주 하다가 지금은 격월에 한 번이나 명절을 앞두고 날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에 오는 어르신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나, 또 다음 행사 날짜를 직전에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기억하고 많이 찾아온다는 것에 사회사업위원회의 사명감을 느끼게도 된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명절의 기쁨을 나눈 외국인제자센터 한가위 잔치

10월 1일, 사회봉사관 컨벤션홀에서 열려

광림교회 외국인제자훈련센터(위원장 서명관 장로)는 10월 1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외국인 한가위 잔치'를 열었다. 한국에 와서 일하는 근로자와 유학생 등 150여 명은 당일 오전 11시 광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3부 예배를 드린 후,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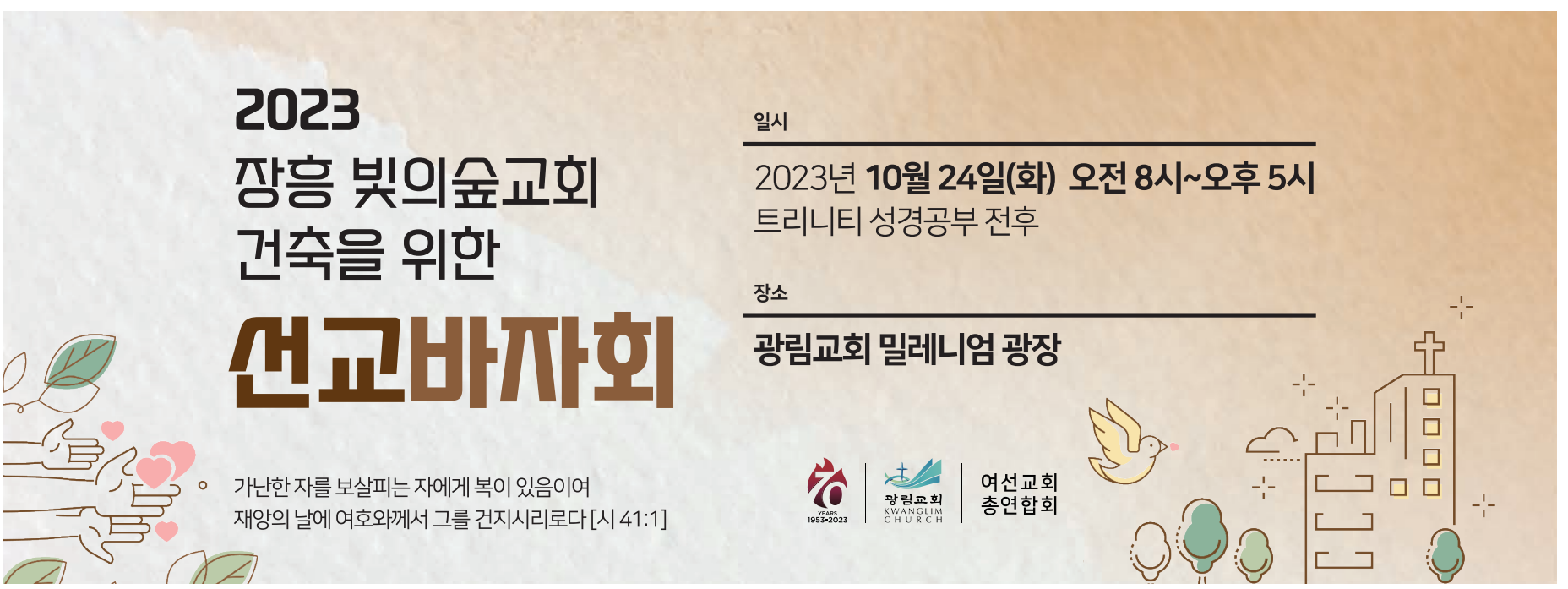
행사에 앞선 애찬 시간에 조성한 목사는 "10년간 중국의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비자, 언어 문제 등 외국 살이가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안다. 그렇지만 국적과 언어는 다르더라도 천국 시민으로 동일하며,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이렇게 한가위 잔치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다"라고 격려하면서 축복 기도를 했다.

여선교회에서 후원하여 준비한 식사를 한 후, 중국, 러시아, 불어권 및 에티오피아 4개 권역의 참석자들은 윷놀이를 비롯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을 하면서 명절의 기분을 만끽했다. 게임 중간에는 중국 선교회의 전통 안무와 에티오피아 선교팀의 찬양이 이어졌다. 한국인 봉사자들은 옆에서 게임 방식을 알려주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고, 게임에 참가하지 않은 참석자들도 함께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순서로는 남선교회를 비롯한 실업인선교회, 기드온선교회 등 많은 성도들이 후원한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경품 전달 시간을 가졌다.

20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에 와서 2007년 외국인제자센터 초기부터 참여를 했다는 알렉스 집사(42세)는 "16년 전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에티오피아인을 위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광림교회 뿐이다. 초기에는 5명 정도가 모였지만 지금은 50명이 넘는 인원이 매주 참석한다. 현재 춘천, 포천, 안산, 천안,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도 매주 출석하고 있다. 함께 모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광림교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서명관 장로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갖는 외국인 잔치에 교회의 많은 기관들이 관심과 후원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4개 권역의 선교회가 모두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에티오피아 선교회는 이번 추석 명절 3일 동안 나사렛성전에서 자국의 목사를 모시고 부흥 집회를 했다. 성도가 늘어 매주 예배 때도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보다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득섭 기자



청장년 1부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삶이 예배입니다

9월 24일, 사회봉사관에서 정주호 트레이너 특강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지난 9월 24일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는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삶이 예배입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강사로 초빙된 스타트레인 대표 정주호 트레이너는 불우한 청소년기에 받은 상처를 운동과 신앙으로 극복하여 영혼육 건강 전도사가 된 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몸이 건강한 것과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큰 관계가 있다. 몸이 힘들면 영도 힘이 들기에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건강한 몸이 영과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전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는 운동이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는 운동의 목적에 대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몸도 잘 돌보아서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는 복음의 소명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 취업하여 바쁘게 살아온 3040세대에게 몸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함께 하면서도 즐거운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Q&A는 40분 넘게 이어졌다.

특강에 참여한 임채원 성도는 "전인 치유라는 키워드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특강이었다. 강사로 섬겨주신 정주호 트레이너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전인 치유였고, 그래서 듣는 내내 감동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나누었다. 김희연 성도는 "그동안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크리스천들도 정신적 고통이나 우울증 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운동을 통해 나오는 호르몬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니 많이 놀라웠다"라고 전했다.

특강 이후 일부 속회에서는 3~4명씩 그룹을 지어 추석 연휴 첫날 스타트레인 스튜디오에서 무료로 그룹 운동 레슨을 받기도 했다. 레슨에 참가한 장기열 성도는 "그동안 직장 일이 바빠 따로 근력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쉽게 따라 할 수 있어 좋았다. 요즘 잠언 트리니티를 듣고 있는데 몸도 잘 돌보아서 영과 육의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강효진 성도(청장년 1부)

청장년 2부

아름다운 청장년부 연합 가델모임

9월 24일, 잠원 한강공원축구장에서 은혜로운 시간

지난 9월 24일(주일) 오후 1시 ~ 4시 청장년 2부(위원장 신범식 장로)에서는 잠원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연합 가델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장년부에서는 매월 1회 속별로 모여서 떡과 함께 삶을 나누는 가델모임 전통이 있는데, 9월에는 추석 직전 전체 속이 야외에서 모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로 모임이 시작되었고, 박지상 목사의 '하나님의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 이후 각 속별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서로 준비한 떡을 떼었고,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혼 가정으로 구성된 청장년 2부의 아이들은 공놀이, 흙놀이를 하고, 신혼 가정들도 일상에서 벗어난 야외 나들이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임 후반에는 형제들의 친선 축구 경기도 진행되었고, 청장년 공식 축구 동호회인 아델포이(회장 원치현 속장) 회원들은 새로 맞춘 멋진 유니폼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라는 시편 말씀이 떠오르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가델이란?

가델은 '창대한, 위대한'(창 26:12~13)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로, 청장년부가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나길 소망하며 갖는 모임을 뜻합니다.

신동준 집사(청장년 2부 부장)

신앙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LFC 청년부 1교구 3지구장 유선화입니다. 청년부에서 15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문을 통해 제가 청년부에 있는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제가 청년부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청년부에서 만난 언니, 오빠들이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따라 다니다가 말씀을 들어보고 눈 감고 기도할수록 어느 순간부터 제 삶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국내선교 팀장을 맡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시작과 끝을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고 팀원들과 저는 너무나도 어리숙했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장을 하면서 많은 은혜의 체험을 했지만 영혼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방황하던 시기에 쉐키나에 가서 눈을 감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속원들을 사랑하심이 느껴지면서 중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속원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령을 구할 때 제 마음을 고쳐주시고 제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다닐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제 삶에서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기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힘든 순간들도 많겠지만 그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청년공동체와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선화 지구장(청년부)

목회현장

온기 가득한 양말

전선옥 목사(강촌광림교회)

광림사랑의집은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의 이름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70명의 어르신과 55명의 직원이 생활합니다. 24시간 서로의 손길로 정성껏 돌보며, 예배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간증합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강○○ 할머니께서 수면 양말을 벗어 제게 주십니다. 이제껏 어르신의 발을 따듯하게 품은 덧양말입니다. 어서 받으라는 듯 손을 뻗으시며,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어색해하십니다. 어르신의 시선이 닿은 곳을 따라가보니 제 발에 멈추었습니다. 제 발 위의 얇은 스타킹을 보지 못하시고, 발이 추울까 벗어주셨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몇 번, 예배드리는 중에 제 주위에 양말을 두고 가십니다.

예배 후, 어르신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스타킹을 벗어 보여드렸습니다. 어르신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양말을 신고 어르신의 발 옆으로 제 발을 나란히 두며 장난하기도 했습니다. 한껏 부끄러운 미소로 환히 웃어주십니다.

그 감사함을 어르신의 장례 예배에서 다시 나누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온전히 모른 채, 가족을 못 찾고 수십 년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신 분입니다. 여러 질환이 있어 정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언어의 표현으로는 깊이 교제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어르신의 몸과 마음 깊숙이 위로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따듯한 사랑으로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보셨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을 찾아 행하셨습니다. 언어의 표현보다 더 따스한 양말은 제 발과 마음을 가득히 위로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찾아 진정한 회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고, 행하며, 전하라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강촌광림교회와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의 모든 가족들도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동탄광림교회

광림의 권속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광림교회의 70주년을 기념하며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완성된 동탄광림교회가 지난 7월 23일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이제 2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7월 30일 첫 예배를 준비하며 모든 것이 서툰 탓에 교회 청소, 음향 체크, 주보 제작까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주보 100장을 하나씩 접으면서 "첫날인데 괜히 이렇게 많이 만들었나" 싶었는데, 예배 첫날 성가대를 제외하고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주보는 한참이나 모자랐습니다. 동탄광림교회는 매주 예배 인원이 증가하여 아이들을 포함하여 주일 오전 142명(성인 120명, 교회학교 22명), 주일 저녁 예배 28명, 수요치유의 신학 13명, 금요은혜의 밤 22명, 매일 새벽기도회에 9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 30일 1부 예배를 드리러 온 새가족이 자신은 가까운 지역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데 동탄광림교회에서 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불씨가 피어난 교회학교는, 지난 8월 17일부터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매주 21명~25명 가까이 출석하며, 2명의 교육전도사와 5명의 교사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장로회에서는 부서실마다 공기 청정기를 설치해 주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부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2개월간 광림남교회 가나안성가대의 열정적인 찬양으로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 동탄 성전 갈릴리성가대가 지난 9월 30일, 14명의 대원들이 함께 모여 연습을 시작하며 3부 예배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성가대 가운을 위해 기도하던 중, 트리니티 찬양단의 귀한 헌신으로 영국 선교의 뜨거운 현장에서 쓰였던 귀한 성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인원 구성에서 기존 성도들 30%, 새가족들 70%이기 때문에 새가족 교육이 시급하였고, 8월 27일부터 약 50여 명이 등록하여 매주 2, 3부 예배를 마친 후 본당에서 바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기를 미루다가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교회에 등록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료하신 새가족들은 모두 새가족 속회에 편성하여 기존 교인들이 속장이 되어 돌보면서 광림의 한 가족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과 70주년을 계획하신 담임목사님의 기도와 결단, 성도들의 한마음 된 충성이 담겨진 동탄광림교회가 더 많은 젊은 세대를 품고 광림의 울타리 안에서 큰 빛의 숲을 이루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제석 목사

주일 예배

갈릴리성가대

새가족 교육

광림교회 숨은 조력자 ⓫
리브가선교회

주신 능력으로 선한 열매 맺어 감사

– 이선자 집사 –

광림교회 리브가 미용 선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리브가 미용 선교회는 미용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미용 봉사에 관심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봉사하는 곳입니다.

1995년 미용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 선교회를 만들었고, 올해로 19년째가 되었습니다.

현재 18명의 성도들이 평일과 주일에 사랑의 집과 사랑부에서 미용 선교를 하고 있으며, 국립의료원·서울요양원·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등 외부 기관에서도 꾸준하게 미용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 도내 미자립교회 등 미용 봉사가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섬김을 실천하고 있으며, 재능을 가진 성도님들의 손길이 매우 필요한 선교회입니다.

리브가선교회 봉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송파구 방이동에서 22년째 미용실을 운영중인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술을 어떻게 쓰임 받으면 좋을지 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광림교회에 출석하고 나서 우연히 리브가선교회를 알게 됐고, 큰 고민 없이 미용 봉사를 시작했어요. 리브가선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13살이던 큰아이가 자라 신학을 전공하고 현재 미국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년의 가까운 세월 동안 미용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도 잘 성장하고, 신앙도 더욱 깊어진 것 같아요.

미용 봉사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간증이 있다면?

돌이켜 보면 리브가선교회가 제 신앙의 끈이 되어주었고, 아이들도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던 큰아이가 어느 날 신학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P국 선교사로 갔을 때, 미국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미용 봉사라 시작했는데, 리브가선교회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요?

한 달에 한 번, 사랑부 이미용 봉사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3~4명 정도의 사랑부 아이들을 만나는데, 덥수룩했던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나서 깔끔해진 모습을 보면 기분이 참 좋고, 보람을 느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로 남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올해 제 나이가 70세인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안에서 리브가 미용 선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한혜선 기자

한국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17

언제나 개척자의 길을 걸으며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 ❷

하디 선교사의 젊은 시절

하디 선교사 가족

토론토 의학생들의 후원으로 파송된 하디 부부는 1890년 9월 30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디는 부산에서 장로교 선교사인 게일과 함께 선교 사역을 펼쳐갈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산에 도착했을 때, 게일은 이미 서울 제중원으로 옮겼기에 하디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제중원에서 의료선교사로 일하다가 미국공사관이 된 알렌의 요청으로 제중원에서 하디의 첫 선교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간 제중원에서 일했던 하디는 미국 북장로교회의 의료선교사인 빈턴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은 외국 상선들의 왕래가 많았고 외국인 거주도 허용되었지만 의료시설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하디는 가족들을 서울에 남겨두고 그의 한국어 선생이었던 고학륜과 함께 먼저 부산에 가서 집과 치료할 곳을 알아봤습니다. 몇 달 후 하디 가정은 부산의 1호 선교사로 이주했고, 처음에는 하디 한 가정이었지만 일 년 사이 10가정이 넘는 선교사들이 부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디는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부산에는 각 교파에서 세운 의료시설이 세워졌고, 많은 선교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디는 선교지 분산을 위해 새로운 선교 비전을 찾고자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외에 복음과 의료시설이 필요한 다른 선교지, 그가 찾은 곳은 원산이었고, 그는 즉시 원산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미 감리회도 북한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확장하려던 차였기에 하디의 결정은 환영받았고, 그는 친구이자 장로교 선교사인 게일, 그리고 미 감리교회 선교사인 맥길과 함께 원산에서의 의료선교사역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17년간 원산에 머물며 선교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그 기간 중 1903년 그의 영적 각성이 있었고, 개인의 영적 각성은 대부흥으로 이어졌으며,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은 한반도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하디는 서울, 부산, 원산에서 의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다른 사람과 협력했습니다. 그는 항상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세상에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위해 고민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그의 1903 영적 각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의료선교회 세미나 ❾ 호스피스

영생 그리고 생명의 떡, 호스피스

호스피스란?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과 그 가족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한 삶을 위하여 사랑으로 돌보는 총체적 돌봄이다. 이 돌봄은 말기 환자의 통증 및 증상관리,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 간호와 죽음 앞에서의 영적 고통에서 돌봄, 사별 가족 간호를 포함한다. 또한 사전 연명치료 의향을 통한 자신의 마지막 준비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의지까지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돌봄이다.

1. 죽음은?

신체적 죽음, 사회심리적 죽음, 영적 죽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질병으로의 죽음은 신체적 죽음이며,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를 사회적 죽음, 신체가 죽게 되면 심리적 영역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영적 죽음은 신체가 죽음에 이르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혼을 구원받으면 살아 있게 되며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호스피스의 핵심이다.

2. 사회적 돌봄 원칙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성의 정리, 여행과 회상,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의 마무리 등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하루를 알차게 채우고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이다.

3. 심리적 돌봄은?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는 부정 ⇨ 분노 ⇨ 타협 ⇨ 우울 ⇨ 수용 ⇨ 희망 단계로 심리적 상태가 변화된다고 'Death &Dying'에서 피력했다. 알켄소 데켄 신부는 이들에게 고통, 두려움, 공포, 외로움, 절망, 고독함, 근엄의 상실, 미완성의 삶, 사후 징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상태를 지적했다. 이때 호스피스 돌봄은 지지해 주고, 옆에 있어 주고, 받아주고, 경청해 주고, 통행하고, 칭찬해 주고, 안심시키고, 감싸주며 용서하도록 돕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므로 사랑의 돌봄을 실행하는 것이다.

4. 영적 돌봄은?

가장 중요한 실천적 무기가 말씀, 찬양, 기도와 예배이다. 인간의 영적 요구의 세 가지는 용서와 사랑의 요구,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추구, 죽음의 수용과 희망에 대한 요구이다. 이 돌봄은 용서와 화해, 남아 있는 시간의 활용, 죄책감을 회개하고 평안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다.

5. 말기 암 환자의 증상관리와 신체 돌봄은?

가장 흔한 증상이 통증이며, 피로, 허약감, 식욕부진, 구토, 호흡 곤란, 인지장애, 불안과 우울 등이다. 이 증상에 맞는 통증 관리와 투약, 필요하고 적절한 신체 간호가 필수적이다.

6. 사별 가족 관리는?

가족을 위한 돌봄이다. 죽음 직후는 희피 단계로 망자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 시기가 지나면 죽음이 실감 나고 망자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역할 구조가 시작된다. 고독과 슬픔이 여전한 시기이다. 마지막 단계인 적응 단계는 남은 자들은 살아야 한다는 역할 대행이 이루어진다. 연구 결과 남성은 1년, 여성은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사람에 따라 더 길 수도 있다.

7. 연명치료 중단의 의미

죽음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무조건 생명만 연장하려는 의료적 판단은 환자에게 불필요하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아 있는 귀중한 시간을 통증 없는 편안함, 남겨질 가족과의 마무리, 가고 싶은 곳 여행, 화해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시간 갖기, 자신의 장례 절차와 가족들의 미래 삶에 대해 나누고 계획하는 등 존엄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호스피스는 비가 세차게 오는 밤에 우산 없이 걷는 한 사람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일이다. 비 오는 밤에 혼자가 아니니 가시는 분은 두려움 없이 의지하면서 타고 가야 할 기차역까지 같이 가는 것이다. 이제 그 기차에 환자분 혼자 타지만 서로 손을 흔들며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떠나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호스피스 케어이다.

광림교회 호스피스선교회는 1993년 세브란스병원에서 62명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한 후 1993년 7월 30일 고 김선도 감독님, 박관순 사모님에 의해 설립되었다.

매년 호스피스 교육이 3월~5월 사이에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본당 1,672명, 일산광림교회 248명, 광림남교회 180명,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교역자 다수를 교육하였고, 1995년부터 강촌 사랑의집 내에 호스피스센터를 설립 운영했다. 초대 회장 김분한 장로, 2대 회장 봉인화 권사, 현재는 이혜림 권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활동 기관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사랑의집 가정 호스피스에 현재 40여 명이 활동 중이다.

매주일 기도회 및 봉사, 매월 월례회로 모이고 있다. 많은 상담과 문의 바란다.

• 문의 : 010-2353-2409

김분한 장로(의료선교위원회)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38-2

골고다의 십자가와 예수의 수난

이윽고 예수를 포함한 '죽음의 행렬'이 골고다에 도착했다. 이날 처형되는 죄인은 예수와 두 명의 죄인을 포함하여 세 명이었다.
곧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형을 시작했다. 십자가 한 개에 네 명의 병사가 한 조를 이루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먼저 양쪽 손바닥에 하나씩 못을 박고, 두 발목을 겹쳐 또 하나의 못을 박았다. 두 죄인은 비명을 질러댔다. 그들의 절규하는 비명은 듣는 사람들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했다.

사실 십자가형은 유대인의 처형 방법이 아니다. 너무나 잔인한 탓에 헤롯왕조차도 십자가형을 자주 쓰지 않았다. 로마인들은 페니키아인들에게 이 처형 방법을 배웠는데,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다. 오직 노예들과 피지배인(被支配人, 다른 나라나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만 십자가형에 처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 명패(名牌)가 붙었다.
빌라도 총독이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INRI/Iesus Nazarenus Rex Iudaeorum)'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명패는 정복자인 로마 문자(라틴어)와 널리 통용되는 그리스 문자, 그리고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적었다.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대답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대략 대여섯 시간이 걸렸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은 그가 죽기를 기다리며 예수가 입던 옷가지를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손과 발에 박힌 못 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예수는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기도하였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한 네가 아니냐? 그러니 네 능력을 보여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도 어울려서 예수를 조롱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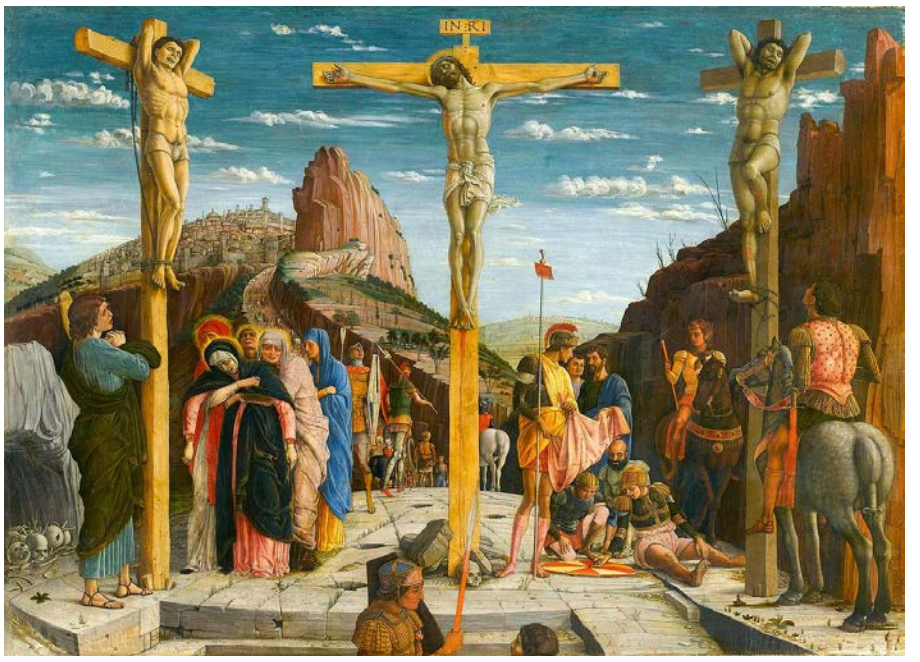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까지도 심한 고통을 간신히 참으며 조롱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다오!"
그러나 다른 죄인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고는 다시 예수에게 말을 건넸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거니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는 거의 탈진한 상태였다. 그는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바라보았다. 모친 마리아가 보였다. 예수는 마리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요한을 보며 말을 이었다.
"요한, 이제는 너의 어머니이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소리였다. 이에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골고다를 떠났다. 이후 마리아는 뱃새다로 돌아갔으며, 그곳에 있는 요한의 집에서 남은 생애를 살았다.

광림뉴스레터



▲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_**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두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장면이다. 이 그림은 풍경과 구도의 입체감을 잘 표현하는 안드레아 만테냐가 투시 원근법을 사용하여 그린 작품이다.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고, 그 양옆에는 두 명의 죄인이 매달려 있어 관람객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킨다. 또한, 배경은 예루살렘의 풍경이 산을 따라 펼쳐져 있고, 그 너머로 멀리 보이는 산과 하늘의 지평선을 이루는 장면에서 원근법의 입체감이 더욱 살아나고 있다.
안드레아 만테냐의 작품

◀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_**
대(大) 피테르 브뤼헐의 작품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 박지상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세나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위선미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